

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느니라

나 운 영

안익태 선생이 60 고개를 눈앞에 바라보며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.

그는 1932년 미국에서 애국가를 작곡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1936년에 그 애국가를 주제로 한 <코리아 환상곡>을 작곡하여 2년 뒤에 초연한 이래 줄곧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을 비롯하여 남미, 북미, 일본에서까지 — 외국인들로 하여금 애국가를 우리나라 말로 합창하게 하여 — <코리아 환상곡>을 연주함으로써 민족과 조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치다가 홀연히 가고 말았으니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.

선생은 왜 일찍 가셨을까? 그다지도 정열적이고 건강하던 그가 어찌하여 홀연히 가야만 했을까? 그가 주재하던 제4회 국제음악제가 국내 음악인들의 불 협조와 냉대로 말미암아 출지에 유산되고 말았을 때 그는 지병 아닌 환병을 얻어 영국에서의 자작 교향시 <논개> 지휘를 마지막으로 쓰러졌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끝내 스페인에 귀화하지 않은 애국가 안익태 선생의 제2의 고향인 마요르카에는 그가 죽은 직후 「안익태 거리」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을 들을 때 「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」는 성경말씀이 되새겨진다.

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선생이 가신 지 10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 음악계는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? 세계적 지휘자를 잃은 우리 악단이 어찌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….

풍운아요 망명객이었던 그의 유해가 아직도 이국 타향에 쓸쓸히 묻혀 있으니 이를 하루바삐 조국 강산에 옮겨 모시는 일을 서두르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여론을 일으켜야겠다.

선생은 가셨으나 선생의 혼을 애국가를 국가 대신으로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살아남을 것이다.

<1975. 9. 17 경향신문>

(부록) 70년대의 한국·한국인 (III)

문: 새로운 세대에게 줄 말은 무엇인가?

답: 작곡분야에 있어서 소위 전위음악이나 전자음악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먼저 전통적인 기법에 의한 착실한 작품, 자타를 기만하지 않는 양심적인 작품을 쓰려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. 「현대음악을 한국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」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한국적인 작곡기법 즉 한국적인 선율법, 화성법, 대위법, 악식론, 관현악법, 작곡법 등을 모색하기를 바란다. 외화내허한 작품을 쓰려 들지 말고 감각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. 유행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해야 하지만 그 유행에 말려 들어 가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은 도저히 쓸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. (월간 중앙)